

#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Satisfaction of Life : Focusing on Comparison of Gender

이경준\*, 송희경\*\*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oung-Joon Lee(ikjoon12@naver.com)\*, Hee-Kyong Song(hksborn@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3차년도 기준 5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남녀 중고령자 2,9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에서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에서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에 대한 성별 비교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중고령자 | 노후준비 | 성별 비교 | 삶의 만족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effect of preparation for aging on satisfaction of life b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 of gender on the analysis. The 3th years additional research and 4th years of Korean Panel of retirement and longitudinal study was used.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was 2,970 for middle aged using based on over 50 years than 64 years. The explan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preparation according to comparison of gender th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men and women. Secondly,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for both men and women showed th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ly, the preparation was confirmed that the results for both men and women is significantly difference comparison of gender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effects preparation for aging on satisfaction of life. As a result, the based on gender through a comparison of the effects preparation for aging on satisfaction of life in accordance with middle-aged ready to raise the preparation and satisfaction of life.

■ **keyword** : | Middle-aged | Preparation for Aging | The Comparison of Gender | Satisfaction of Life |

## I.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도에 7.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4년도에는 12.7%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국민 평균수명은 2013년 기준으로 82세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78.5세, 여자는 85.1세로 나타나 여성의 평균수명이 6.6세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은 노년기 생활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높은 관심과 함께 노후 생활에서 삶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영위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들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년기 삶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중고령자 세대인구가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인간의 생활주기상 개인적, 사회적 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반면 인생 후반부로의 진행을 의미하며, 가족생활의 안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은퇴준비와 함께 노후준비 계획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3]. 중고령자는 신체적으로는 갱년기 증상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화를 체험하게 되고 신체적인 변화는 심리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공적연금(국민연금외 기타공적연금포함)에 의한 경제적 노후준비는 남자가 37.3%, 여자는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에서 남성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조건에 놓이게 되어 노후준비에 대한 각별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를 통해 전체 인구 중 50-64세까지 중고령자의 성별 인구조사를 보면 전체

8,747,062(100%)명 중 남성노인이 4,305,755명(49.2%), 여성노인이 4,441,307명(50.8%)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약 60%를 차지하였다[6]. 또한 성별에 따른 중고령자의 2013년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52.6%, 여자 32.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평균 취업으로는 4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8].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남녀 비교에 대해 제시해왔던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2013), 통계청(2015)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노후준비가 약하고 여성노인의 숫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취업현황 또한 여성노인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요인이 하나의 변수로만 취급되어 차이 검증에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고령 인구의 남녀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 비교 및 성별에 따른 관련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남녀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노후준비 하위요인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9-11].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64세까지의 중고령자 대상에서 조사한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특정 지역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중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노후보

장패널조사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고찰하고 결과에 따른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사람마다 개인의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으로 인한 만족도는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삶의 만족도 개념은 생활만족, 삶의 질, 행복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정의되어 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 Havighurst and Tobin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사용한 이후부터로 보이며, 두 이론의 검증이 보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도의 개념이 발전하였고, 현재까지 적용되어지고 있다[12].

삶의 만족도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3]. 또한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지적 판단과 평가를 통하여 개인 생활의 기대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며 만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4]. 노년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삶에 비중을 어디에 두고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의 생활안정, 적응성, 자아인식, 정신건강, 기쁨, 안녕,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5].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 중에서 여성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노인 인구 성별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8].

중고령자의 사회적 구조에서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영향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녀의 각기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애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 만족감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6].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 생활의 질,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17].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건강요인, 경제요인, 사회요인, 심리요인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모든 요소가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18]. 삶의 질에 대하여 직접적 영향관계가 적은 객관적 변수에 의해 심리요인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해석 되었다. 중고령자의 생활 만족도와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지만 그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상성이 다소 둔화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2][8][19-21]. 또한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 상태로서, 삶을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정서적 안녕상태 및 전반적인 일상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2].

위와 같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여 종합해보면 삶의 만족이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흡족한 상태 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개인이 받는 보상에서의 흡족할만한 것 같은 기대치와의 일치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상태와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 2.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중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의 범위를 중고령자는 50세-55세 미만인 자로 법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64세 이하까지 통계학적으로 중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란 노년기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준비하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생주기 후기 또는 은퇴이후의 소득 감소나 상실로 이어지는 노년기에 확대된다. 특히 소득이 감소되는 시기나 은퇴기에 노후소득에 대한 과정과 준비는 큰 과제이며 불확실한 미래의 노년기 노후를 위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따라서 중년기의 노후준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생활만족을 위한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23].

중년층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에릭슨(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에서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위기극복 과정과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하였다. 발달단계 중 중년기는 생성감 대 침체성의 심리사회적 과제와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생산성을 통해서 중년기의 성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하고 생산적인 중년들은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24].

이와 반대로 침체성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신이 사회에서 역할 축소와 지위를 잃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생성감이

라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하였다[25]. 중년기에 중요한 것은 생성감과 침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매우 생성감적인 사람이라도 다음 노년기를 위한 계획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함께 휴지기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의미하며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노후에 대한 기대 및 걱정 수준과 관심의 초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도 분석 되었다. 남성의 경우 노후에 대한 기대가 15.4%, 노후에 대한 걱정이 50.4%인 반면 여성의 경우 노후에 대한 기대가 12.4%, 노후에 대한 걱정이 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별 비교에 의한 차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걱정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6]. 또한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성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으로는 생활비용, 가족부양, 무위 등을 지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건강 상실, 치매 및 중풍 등 건강관련 요인들을 지적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중년기는 연령에 따른 노화 과정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 및 노년기를 위한 노후준비 등 다양한 삶의 만족을 위한 구성요소에서 차이를 보이며 성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27]. 결국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는 노년기 노후의 생활만족을 위함이고 노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23]. 중년기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하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활동 중단, 가정 내 지위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황혼의 이혼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주기 중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시기를 가장 어렵고 고립된 생활을 경험하며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노년기 문제는 청소년이나 장년층에 비하여 당면한 시기에 바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중·장년층 시기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행동유형을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여 반영하는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여가 준비를 설명하고 있다[3].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체적 노후준비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화로 노인들은 만성질환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노년기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 심리적인 안정감과 고립감 등은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10].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 생활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소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라고 하였다[28].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노화의 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중요한 건강 문제로 평소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의미한다. 신체적인 요인으로서 만성질환에 처해 있는 노인 질병은 성인 때부터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질병으로 이어져 더욱 악화되어 오는 결과이다. 이러한 노인의 질병은 노후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강관련 문제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욕구 증대, 증대되는 만성질환 유병율, 건강악화에 따른 가구 내 의료비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9].

### 2) 정서적 노후준비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주요 요소가 중년에 거의 완성되는 인성

유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년에서의 정서적인 결과가 노인시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였다[12].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직장에서의 은퇴와 가정에서의 자녀출가, 배우자 사별, 가까운 지인들의 사별 등으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등으로 우울증을 경험하며 극단적인 자살충동으로 이어져 노인의 자살률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서적 노후준비로는 노년기 이전의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며 지내오던 중년층 사람들도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역할상실을 경험하며 이러한 역할 상실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특히, 남성 노인의 노년기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친구나 여러 사람들과 원활하고 친밀하게 어울리며 함께 활동을 많이 하는 등의 정서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 3)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는 정서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소외감과 고독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독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하여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한다[30]. 은퇴 이후 노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는 노후의 생활만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노인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년기 노후는 주위의 관계에서부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에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생적이고 보람 있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가지는 것도 사회적 노후준비가 될 것이다.

### 4) 경제적 노후준비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의 수명연장은 노후생

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요인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인 조건과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경우에 따라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한다[31]. 또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과 노화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의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년기 생활을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2]. 또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퇴이후의 가족관계 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나 부양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33]. 따라서 노년기의 경제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고 구성하여 스스로가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과정을 거쳐 달성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분석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3차 부가조사, 4차 자료를 활용한 회고적 연구이다. 3차년도 자료는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1차 자료는 2005년에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개인 8,6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서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 2011-2012년에 수집된 4차 자료를 활용한 회고적 연구이다. 전체 노인 조사대상 중에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고령자 2,9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연구변수의 측정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3차년도 부가자료, 4차년도 데이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으로 독립변수는 노후준비 구성요소

하위 네 가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의 노후준비로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네 가지 구성요소로서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 졌고 총점 범주는 10점에서 50점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5$ 이다. 사회적·정서적으로 합쳐진 노후준비의 문항으로 질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정서적 노후준비로는 4문항으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점 범주는 4점에서 20점이다.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는  $\alpha = .67$ 이다. 셋째, 사회적 노후준비로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총점 범주는 6점에서 30점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9$ 이다.

표 1. 노후준비 구성요소

변수	내용	신뢰도
신체적	1.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2.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3. 지나친 음주는 자제한다. 4.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5.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다. 6.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7.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8. 만성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한다. 9.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10. 스스로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alpha = .75$
정서적	1.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맺는다. 2. 가족과 마음을 터 놓는다. 3. 가족상상에 적응하려고 한다. 4. 정서 안정을 위해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alpha = .67$
사회적	1. 사회적 행사에 참여한다. 2.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3.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단체에 참여한다. 4.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6. 여가활동을 늘릴 의향이 있다.	$\alpha = .79$
경제적	1. 정보 수집을 수집한다. 2. 가계의 총 자산을 계산한다. 3. 절약하며 생활한다. 4. 저축을 한다. 5.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6. 창업 투자할 의향이 있다. 7.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8.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다. 9.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10. 개인연금이나 보험 가입할 의향이 있다.	$\alpha = .75$

마지막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 범주는 10점에서 50점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5$ 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은 매우 불만족, '5'는 매우 만족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총점 범주는 12점에서 60점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89$ 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남녀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연령은 50-64세까지 대상으로 구분 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교 이상까지, 배우자 유무는 더미변수 처리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 매우 좋지 않다, '5' 매우 좋다'로 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 졌다.

###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가 2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며 10 이상이면 독립변수들 간에 100%에 가까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34].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227명(41.3%), 여성이 1,743명(58.7%)으로 남녀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70)

변 수	범 주	전체	남성 (N=1,227)	여성 (N=1,743)
연령	50-54	690	228(18.6)	462(26.5)
	55-59	1,101	484(39.4)	617(35.4)
	60-64	1,179	515(42.0)	664(38.1)
	계	2,970	1,227(100)	1,743(100)
교육 수준	무학	137	23(1.9)	114(6.5)
	초등학교	1,005	282(23)	723(41.5)
	중학교	721	286(23.3)	435(24.9)
	고등학교	836	454(37)	382(21.9)
	대학교	271	182(14.9)	89(5.1)
계	2,970	1,227(100)	1,743(100)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2,537	1,124(91.6)	1,413(81.1)
	무배우자	433	103(8.4)	330(18.9)
	계	2,970	1,227(100)	1,743(100)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164	58(4.7)	106(6.1)
	좋지 않는 편이다	811	233(19)	578(33.2)
	보통이다	868	356(29)	512(29.4)
	좋은 편이다	967	493(40.2)	474(27.2)
	매우 좋다	160	87(7.1)	73(4.1)
	계	2,970	1,227(100)	1,743(100)

났다. 연령별로 보면 50-54세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228명(18.6%), 462명(26.5%)으로 나타났고 55-59세에서는 남성은 484명(39.4%), 여성은 617명(35.4%)을 차지하였고 60-64세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15명(42.0%), 664명(38.1%)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은 60세 미만의 비율이, 남성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전체 비율에서 63%정도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성보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여성의 낮은 학력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체 중고령자의 학력수준이 낮아진 결과이다. 남자 중고령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절반 이상 되는 반면에 여성은 무학 6.5%를 포함하여 4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배우자 유무에서는 전체적으로 85.4%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4.6%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배우자 유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91.6%로 나타나 여성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81.1%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6.1%를 포함하여 좋지 않다

이하가 39.3%를 차지하여 열악한 건강상태가 남성의 23.7%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7.1%를 포함하여 좋은 편이다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더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사용하였다. 노후준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 = 3.380, p < .001$ ).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후준비의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신체적 노후준비와 정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 3.36(.582)와 경제적 노후준비 2.61(.599)에서 여성의 신체적 노후준비 3.24(.641), 경제적 노후준비 2.44(.5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이웃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접촉이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노후수준은 남성 2.69(.799)이 여성 2.73(.81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구분	남		t	p	
	평균(SD)	평균(SD)			
노후준비	신체적	3.36(.582)	3.24(.641)	4.939	***
	정서적	3.22(.759)	3.36(.739)	-4.771	***
	사회적	2.69(.799)	2.73(.814)	-1.341	.180
	경제적	2.61(.599)	2.44(.582)	7.514	***

\* $p < .05$ , \*\* $p < .01$ , \*\*\*  $p < .001$

### 3.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삶의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 = 6.225, p < .001$ ).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삶의 만족도의 하위 요인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차이를 보면 경제적 상태에서 남성이 3.03(.933), 여성이 2.95(.901)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는 각각 3.57(.741)과 3.51(.766)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부부생활에서 각각 3.39(1.234)와 2.90(1.557)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생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일)에서는 남성이 2.48(1.619), 여성이 1.65(1.73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남녀 각각 3.32(.874)와 3.16(.844)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에서 친구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구분	남		t	p	
	평균(SD)	평균(SD)			
삶의 만족도	주거상태	3.46(.789)	3.42(.752)	1.380	.168
	이웃관계	3.46(.780)	3.51(.724)	-1.579	.114
	경제적 상태	3.03(.933)	2.95(.901)	2.189	*
	친구관계	3.57(.741)	3.51(.766)	2.059	*
	가족관계	3.66(.738)	3.60(.766)	1.813	.070
	부부생활	3.39(1.234)	2.90(1.557)	8.481	***
	직업(일)	2.48(1.619)	1.65(1.736)	12.415	***
	건강	3.32(.874)	3.16(.844)	4.905	***
	생활전반	3.39(.713)	3.35(.662)	1.613	.107
	자녀관계	3.59(.858)	3.60(.825)	-0.079	.937
	형제/자매 관계	3.46(.783)	3.42(.824)	1.068	.286
	여가활동	3.18(.790)	3.15(.749)	.891	.373
합 계	3.33(.628)	3.18(.577)	6.225	***	

\* $p < .05$ , \*\* $p < .01$ , \*\*\*  $p < .001$

### 4.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성별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r = -.227 \sim .601$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에서 10이 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 변인들이 1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삶의 만족도
성별	1									
연령	***	1								
교육 수준	***	***	1							
배우자 유무	***	***	***	1						
건강 상태	***	***	***	***	1					
신체적	***	***	***	***	***	1				
정서적	***	***	***	***	***	***	1			
사회적	***	***	***	***	***	***	***	1		
경제적	***	***	***	***	***	***	***	***	1	
삶의 만족도	***	***	***	***	***	***	***	***	***	1

\*p<.05, \*\*p<.01, \*\*\* p<.001

[표 6]은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변수와 노후준비 요인이 투입되어 나타난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의 경우 남성은 25%를 설명하고 (F=41.427, p<.001), 여성은 20.8%를 설명하는(F=49.277, p<.001)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의 변인을 보면 연령에서는 삶의 만족도에서 남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삶의 만족도에 더 높게 나타났다( $\beta=.080, P<.01$ ). 배우자 유무에서는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beta=.299, p<.001$ ).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건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남녀 모두 건강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222, p<.001$ ).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서는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노후준비가 더 높았다( $\beta=.111, p<.01$ ). 또한 정서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beta=.080, p<.01$ ). 또한 여성은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남성			여성		
	B	SE	$\beta$	B	SE	$\beta$
연령	-.002	.005	-.015	-.007	.004	-.049
교육수준	.034	.017	.050*	.045	.014	.080**
배우자유무	.704	.067	.299***	.426	.035	.287***
건강상태	.139	.018	.222***	.091	.014	.157***
신체적	.074	.033	.070*	.051	.024	.057*
정서적	.020	.030	.025	.026	.024	.034
사회적	.084	.028	.111**	.034	.021	.049
경제적	.051	.032	.049	.080	.026	.080**
F	41.427***			49.277***		
R <sup>2</sup>	.250			.208		

\*p<.05, \*\*p<.01, \*\*\* p<.001

주) 성별, 배우자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3차년도 부가조사, 4차년도 자료를 통하여 전국의 50세 이상 64세 까지의 중고령자 2,97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노후준비 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 중고령자에 대한 노후준비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하위요인에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때문인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0][31][32][35].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낮게 나타나 여성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자립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36].

둘째,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6][37]. 이와 상반되게 나타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8]. 이는 여성의 일과 취미, 여가생활 등 사회생활의 확대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에서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부부생활, 직업(일), 건강에서 유의미하게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 중에서 성별 격차를 만드는 요인으로 고용과 건강 상태로 파악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15]. 또한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부부생활, 건강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와 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다[38].

셋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

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성이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은 건강관련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신체적 노후준비가, 여성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의 요인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서 건강과 관련된 준비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요인에서도 배우자의 유무가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의 특성에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수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성별 교육수준 차이는 현재의 중고령자 세대가 살았던 시대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인 남녀차별로 불평등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성취감과 경제적 능력을 높여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25].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 성별에 따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와 건강에 대한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여성의 열악한 취업률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선택에서 직전 일자리 형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9]. 아울러 일자리를 장려할 수 있는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양성평등의 기반 하에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노후준비와 연계하여 열악한 사회적 환경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실천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은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일반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면 삶의 만족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성은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의 실천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체, 사회, 경제, 정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후준비 프로그램 실행과 실질적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 심리적인 안정감과 고립감 등은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같은 결과이다[11]. 노인의 건강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노화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노후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고령자의 신체적 노후준비를 높이기 위하여 운동과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방적 노인건강 교실이나 주기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역보건기관과 연계, 확대하여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하위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요인에 맞게 조사된 연구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영역을 더 세분화 하고 여러 요인들의 자료를 확보하여 성별 비교 중심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
- [2]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 노인의 특성 비교," 노인복지연구, 통권 47호, pp.137-160, 2010.
- [3] 주예심, *중년층의 노후준비의식과 퇴직태도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 김미령,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통권 62호, pp.257-288, 2013.
- [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2013.
-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1.
-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 [8]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13-29, 2004.
- [9] 김양이, 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 조사연구, 제19권, pp.55-82, 2008.
- [10]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23권, 제1호, pp.275-297, 2008.
- [11]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12] B. L. Neugarten, R. L. Havighurst, and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961.
- [13] R. J. Havighurst, *Middle Age and Aging*,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 [14] M. G. Chekola, *The concept of happin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 1974.
- [15] A. J. Barrett and P. J. Murk, *Life Satisfaction Index for the Third Age(LSITA): A Measurement of Successful Aging*, IUPUI Scholar Works,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 2006.
- [16] 오준범, 이준협, "체감중산층의 삶의 만족도, 체감 저소득층보다 27%p 높다," 이슈리포트, 제34권, pp.1-14, 2014.
- [17] 이승신,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 연구, 제15권, 제4호, pp.43-61, 2012.
- [18] 한석태,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제42권, 제3호, pp.449-461, 2013.
- [19] 강시모,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 석사학위논문, 2014.
- [20] 김원배,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1] 박민서, 조규범,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권, 제1호, pp.287-303, 2003.
- [22] 임주영, 전귀연,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pp.71-87, 2004.
- [23] 최혜련,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4] 정석희, 중산층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간 관계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5] C. D. Ryff,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the insid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change in adulthood and aging*, In P. B. Baltes and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4.
- [26] 이소정,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7호, pp.72-80, 2009.
- [27] 김미령,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145-161, 2012.
- [28] 임경자,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9] 보건복지부,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2011.
- [30] 송석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1]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32] 김지영,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3]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34] 유태균, 김경휘,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경기: 공동체, 2013.
- [35] 장은하, 노후준비도가 상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6] 황승일, 초기 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7] 김철수, 유성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51-73, 2009.

[38] 강은나,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36호, 2014.

[39] 김소희, 박미현,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85-196, 2015.

### 저자 소개

이 경 준(Kyoung-Joon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사회복지학 석사)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삶의 만족

송 희 경(Hee-Kyoong Song)

정회원



- 2007년 8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8월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 현재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중장년 재취업, 직업능력